

노무현의원을 도와주시려면

- 14대 총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선거열기를 높여 주십시오.
- 주변 이웃과 동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고 설득해 주십시오.
- 주변 동료와 함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오.
- 주변 동료에게 후원회 가입을 권유하고 직접 가입해 주십시오.
- 자원봉사자로 나서 주십시오.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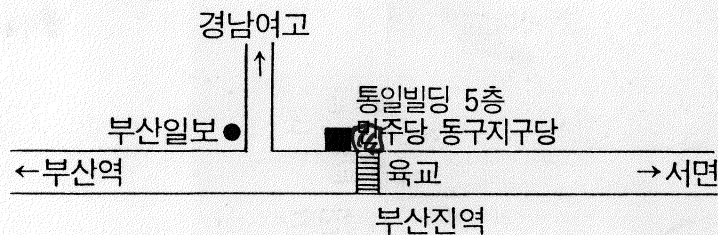
노무현 후원회 자원봉사자 모임

시간 : 1992. 3. 5 (목) 오후 7시

장소 : 민주당 동구 지구당 (노무현 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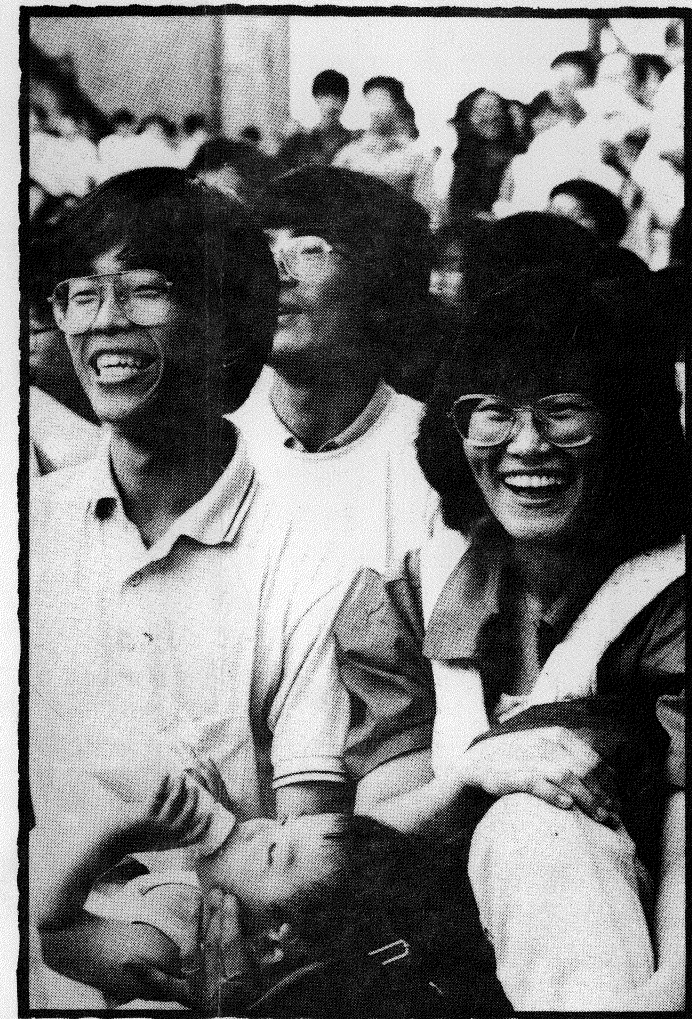
- 부산진역 육교 옆 통일빌딩 5층 (465-3214, 464-8711~2)

약도



- 진행 순서 -

- '놀이패 일터' 공연
- 후원회장 인사말
- 축사
- 노무현 의원 강연



노동자의 대변자, 노동자의 벗

노무현의원과 함께하는 후원회의 밤

노무현 후원회

총선과 노동자

물가폭등, 노동악법, 임금동결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노동자의 짐이며 숙명입니까? 거대여당 후 집권세력은 이 땅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무엇을 안겨주었습니까?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노동통제정책과 노동부의 횡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의 유일한 열쇠는 바로 우리 자체의 힘과 노력입니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많은 희생과 노력을 요구할지라도.

그러나 노동자에게 굴레를 강요하는 노동법과 노동정책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국회를 만들어 그릇된 정치가 바로 잡혀야 합니다. 반노동자적인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노동자의 미래, 민주화의 장래를 좌우하는 분수령입니다. 이것은 지난 기초 광역의회 선거를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현시국은 노동자의 단호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과 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엄청난 물량과 허장성세에 눌려서는 안됩니다. 단일 민주후보로 명확한 전선이 형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체념은 우리 마음의 적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값아 먹는 병균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합니다.

불만과 분노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환시킵시다.

정치의 새바람, 민주의 새바람을 일으킵시다.

우리 노동자는 실수로 죽기도 하고
어쨌든 화약옆에 가면 죽기 쉽습니다.
중인이 돈을 많이 벌려면 노동자들이 화약옆에
기계옆에 가야하고 이러다보면 부득이 죽는 때도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특하면 '우리식구' '가족' 합니다.
그런데 권력에는 5년 동안 34억 5천만 원을 갖다 주고도
그 가족이 죽었는데 3천, 4천을 주느니 마느니 합니다.
1천만 원, 6백만 원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앞의 증인들, 앞으로 나올 증인들에게 본 의원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청문회에서)

이것이 오늘날 노동행정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 이제 앞으로 대우자동차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납니다.
왜냐, 합법적으로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노동부가
봉쇄해 놓아서... 노동부가 했어요. 장관 이름으로 기각했어요.
... 말해보시오 ... 밝히시오! 빨리 ... 뭐하는 사람들이요?
당신들 ... 국민들 세금가지고 봉급받아 먹고 앉아서
재벌들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 그것이 공무원이요
... 몇 명이 협박에 의해 찍었나니까. ... 답하십시오!
(145회 임시국회 노동상임위 9차회의
대우자동차 임시총회 소집신청서 반력을 따지며)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했던 소리는 개짓는 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노동자는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법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 이상 그들도 법에 기대어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개짓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잡아넣고 국회를 깔아뭉개도
노동자들이 그렇게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잡아넣어 보십시오.
앞으로 이 사회가 노동자 세력에 의해서 불안이 생긴다고 할 때
그 불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서울 지하철, 현대중공업 공권력 투입시 국회 노동위)